

## 열린 마음과 희망을 담아 일상으로 돌아간다

서울에서 출발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징과도 같은 서해대교를 넘어서면 닿는 곳이 충청남도 당진이다. 공업도시로써의 이미지가 강해 관광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곳이지만 가을앞으로 웅망그렁한 마음 한 구석에 정서적인 충만감을 안겨줄 숨은 보석이 있다.

글 서창석 사진 서찬우

## 붓으로 땅을 일구고자 했던 심훈 선생과의 만남

지난여름의 짙통더위를 몰아낸 선선한 바람과 높은 하늘의 조각구름이 평온한 가을을 그려낸다. 그런데 가을을 타는 탓일까? 마음 한 구석이 뻥뻥그렇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쓸쓸함이 느껴질 때는 여행이 보약이다. 휴가철이 지난 지금, 짧은 시간에 돌아보며 삶의 기를 보충하기 위해 충남 당진으로 떠나 숨은 보석을 찾아본다.

당진에서 찾은 첫 번째 보석은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에서 가까운 필경사(筆耕舍)다. 필경사는 사찰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자를 해석하면 붓(筆)으로 땅을 일군다(耕)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옥호이다. 찾는 이 별로 없어 한적하기만 한 초막집 필경사가 특별한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계몽문학의 선구자로 대표되는 심훈 선생이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 곳이기 때문이다.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좁다란 시골길을 따라가면 이내 대나무 숲을 등에 업은 것 같은 소담한 필경사가 눈에 들어온다. 그 곳에는 36세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난 심훈 선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한 세기 전, 이 땅에서 지식인 중 한 사람이었던 심훈 선생은 기자와 시인, 소설가, 영화인으로 살면서 한 자루 붓을 연장 삼아 일제에 항거하지만 일제의 탄압에 쓴맛을 보게 된다. 하지만 선생은 붓대를 꺾지 않고 당진으로 내려와 필경사를 지은 뒤 그곳에서 소설 상록수를 집필한다. 지금도 황토를 짓이겨 바른 벽채 안쪽으로 보이는 정갈한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원고 뭉치, 그와 함께 밤을 지새웠을 초롱, 오래된 책과 신문이 놓여있다. 조금 전까지 원고를 쓰던 심훈 선생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금방이



라도 모습을 드러내며 말을 걸어올 것만 같다.

선생이 심었다는 초막 옆에 있는 향나무에서는 심훈 선생의 생명력이 느껴지고, 바람 불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 내는 뒤편 대나무 숲에서는 심훈 문학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다. 볼품없고 초라한 초막집이 보는 이의 가슴을 뻥뻥하게 하고, 꽤 오래도록 발길을 붙잡고 사색하게 하는 것은 암울했던 시기에 한없이 고뇌하며 붓으로 땅을 일구고자 했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리라.

## 처음 와본 곳인데도 너무나 낯익은 아미미술관

빠르고 정신없이 흐르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 가보는 곳이면서도 낯설지 않은 곳이 있다. 당진시 순성면 성북리 아미산자락에 있는 아미미술관(AMI Art Museum)이 그랬다. 한적한 시골마을의 아담한 폐교를 미술관으로 바꿔 실내전시관이 된 옛 교사는 외벽 페인트칠과 부분적 보수 말고는 바닥과 천장 서까래까지 옛 모습 그대로이고, 학교로 사용되었을 때 새시로 교체했던 유리창은 처음 건축 당시 목수가 다시 나무틀로 바꿔 놓음으로써 아련한 추억이 되살려 놓았다.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향수를 달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가을 햇빛을 머금은 채 살랑거리는 아이비덩굴이 새하얀 벽을 기어오르는 단층건물과 어디에나 있는 나무와 풀... 특별하려고 꾸미지 않은 모습이 더욱 정겹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분명 처음 와본 곳인데도 너무나 낯익어 과거에 와봤던 것 같은 기시감(既視感, 데자뷰)마저 들게 하는 곳이 바로 아미미술관이다.

박기호 관장이 20년 공들여 가꾼 이곳에서는 10월 20일까지 '콩쥐 팔쥐들의 행진'이라는 주제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 젊은 작가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고운 잔디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운동장을 거닐며 나만의 사색을 즐길 수 있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뜨는 해를  
볼 수 있는  
석문면 '왜목마을'은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서 좋다. 가보기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고, 큰 기대를 갖지도 않지만 한 번 가보고나니 아미미술관은 당진 땅에 숨겨진 또 다른 보석이였다.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왜목마을'**

사실 당진은 관광지로써의 지명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당진시 우강면에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뫼성지'가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삽교호관광지에는 해군의 상륙함 '화산함'과 구축함 '전주함' 등 우리 바다를 지키다가 퇴역한 군함 2척과 해병대의 수륙양용장갑차, 해상초계기, 함포 등을 전시한 '함상공원' 등 나름 '특별하다'고 내세우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도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뜨는 해를 볼 수 있고, 섬 사

이로 지는 해를 조망할 수 있는 석문면 '왜목마을'은 당진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명소로 꼽힌다.

왜목마을에서의 일몰은 바닷가가 아닌 마을 뒤편의 석문산에 올라야 볼 수 있는데 쉬엄쉬엄 걸어서 10분 정도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바닷가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초입은 계단이 설치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석문산 정상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간척지 평야지대와 대호방조제 저편의 섬들 사이로 지는 해가 조화를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다만 당진화력발전소로 이어지는 거대한 첩탑과 전선들이 평야를 가로지르는 까닭에 사진촬영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몰 사진을 찍으려면 대호방조제 초입의 발전소 전시관 뒤에 있는 전망대로 가야 좋은 일몰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왜목마을 바닷가 횃집에서 요즘 한창인 가을 전어를 맛보며 밤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진다. 어촌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여유로움을 즐기고 싶다면 왜목마을 동쪽 용무치포구나 장고항포구로 이동할 것을 권한다. 일출과 일몰 시간과 지점은 절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과 포인트를 알려면 그곳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새벽이 되면 왜목마을 동편 바다 수평선 위로 어김없이 해가 뜬다.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의 여명은 시시각각 세상을 바꿔놓으며 대자연의 위대함을 과시한다. 그것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하면 블록버스터처럼 웅장하다. 세상을 잠재웠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정체를 드러낸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까지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포용, 용기와 희망과 의지... 시대의 선각자와 교감하고, 시골마을 미술관에서 추억을 되찾은 뒤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보면서 횡했던 가슴에 열린 마음과 희망을 가득 담아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